



“수박 먹고 수능 대박” 4일 화순 능주고 3학년생들이 2010학년도 수능 D-100일을 맞아 선생님들이 마련한 수박을 먹으며 고독점을 다잡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양과동 매립장 메탄가스 발전시설 한전에 판매 年 5억 수입

인근 주민 복지 지원

광주시가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이어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도 메탄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주)서희건설을 선정하고, 1MW/h급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계획에 착수했다. 이곳에선 시간당 1MW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5억원의 수익을 얻어 이 중 일부는 인근 주민들의 복지지원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된 3MW/h급 발전시설에서 시간당 1.5MW의 전력을 생산, 연간 10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데 이어 광역위생매립장의 메탄가스도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광역위생매립장에는 (주)서희건설이 15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메탄가스 판매 수익금 중 5.5%를 사용료로 받아 이를 인근 마을들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방침이며, 1MW급의 발전시설이 정상가동되면 연간 2만7천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매립가스 발생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악취 발생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광역위생매립장에 메탄가스 발전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악취를 제거하고, 버려진 자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이를 인근 주민 복지비로 사용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종플루 나주 군부대 3명 감염

광주시, 광엑스포 등 3대 국제행사 앞두고 차단 안간힘

광주·전남 확진 29명

대구에서 전투경찰대원 18명이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인 데 이어 전남 지역 모 군부대에서도 3명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군단국과 경찰 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자가 1천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시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세계엑스포와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모 부대 장병 3명이 최근 신종플루에 감염돼 2명이 함평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내무반 소속으로, 이미 완치돼 퇴원한 사병 1명으로부터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알

려졌다.

보건당국은 1차 감염된 안치 사병이 휴가 때 카투사 소속 친구를 만난 뒤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동료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플루가 병영(兵營)까지 확산됨에 따라 군단국과 경찰 등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1사단은 외출·외박 장병을 대상으로 군의관이 일일이 체온을 확인하고 감기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상무대도 휴가복귀 장병들의 경우 반드시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은 2천여명에 달하는 전의경들에 대한 위생건강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도 하반기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신종플루 확산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각각 2명, 2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디자인 신종플루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광엑스포 등 3대 국제행사 기간 동안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주행사장 4곳에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행사장 입구에는 신종플루 상황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체 관람객 특별관리를 통해 신종플루 환자 유입을 막는 한편,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 조치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학생이 재학 중인 전남대 등 5개 대학(743명)에 발열상담센터 설치하고, 소방서와 교도소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최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벌집 제거해 주세요”

이상기온 벌 급속 증가

전남 곳곳서 민원 속출

최근 이상기온으로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벌집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벌집 관련 출동건수는 총 4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6건)에 비해 약 17%가 증가했다.

특히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여 건씩 벌집 제거요청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심지어 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4시 25분께 해남군 송지면 땅끝 전망대에서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고, 담양 금성산에서도 등산객이 벌에 쏘여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최근 벌집 제거와 출동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추세가 추석이 지나고 10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벌로 인한 피해가 여름철과 다가오는 추석이 겹치니, 그리고 야외활동 및 산행이 증가하는 가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날씨

☀️ 해돋이 05시 44분
☀️ 해질 19시 32분

🌙 달돋이 19시 04분
🌙 달질 04시 43분

몰려드는 비구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구분	구름 많음	22/30℃
광주	구름 많음	22/30℃
목포	구름 많음	22/28℃
여수	구름 많음	22/28℃
전남	구름 많음	22/29℃
대구	구름 많음	21/30℃
충청	구름 많음	22/29℃
경북	구름 많음	21/28℃
충남	구름 많음	22/29℃
전북	구름 많음	21/30℃
강원	구름 많음	22/29℃
제주	구름 많음	21/30℃
울산	구름 많음	22/28℃
부산	구름 많음	22/26℃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2m	☀️	🍷	😞

◇주간날씨

날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3/30	23/28	23/30	23/31	23/32	23/32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남대문로 학사동 605-1114 / 대학원 605-1115

무등산 조례 폐지 서명운동

광주 환경단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등산 개발조례 제정 반대 시민회의'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등산을 두고 벌여졌던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수단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무

등산 개발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광주시의회는 조례의 문제점과 파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박광태 시장은 무등산이 자연공원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면서 각종 개발 압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안출발 백두산 전세기

백두산 북파+용정+도문관광 4일(토) 8월15일 749,000원

TEL. 02-385-3355 FAX. 02-385-3357

SK 텔레콤 광주지점 이전안내

고객님께 더 좋은 서비스와 만족을 드리하고자 SK텔레콤 광주지점이 아래와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일자: 2009년 8월 27일

이전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평동 410-22번지 다나비디지털빌딩 1층

201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논술 설명회

8월 14일(토) 오후 2시~4시

숙명여자대학교